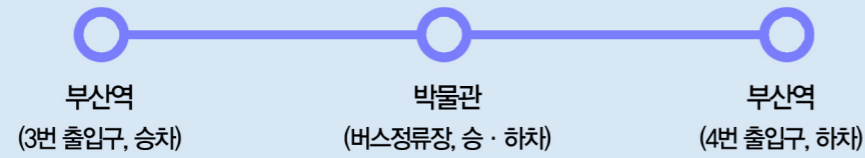


국립해양박물관 무료셔틀버스 운행안내

국립해양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해 2014년 1월 7일(화)부터 무료 셔틀버스 시간을 추가 변경하여 운행하오니, 시간표를 확인하시어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노 선 |



회 차	평 일		토요일		일요일 · 공휴일	
	박물관 출발	부산역 출발	박물관 출발	부산역 출발	박물관 출발	부산역 출발
1	10:00	10:30	10:00	10:30	10:00	10:30
2	11:30	12:00	11:30	12:00	11:30	12:00
3	13:00	13:30	13:00	13:30	13:00	13:30
4	14:30	15:00	14:30	15:00	14:30	15:00
5	16:00	16:30	16:00	16:30	16:00	16:30
6	18:20	-	18:20	19:00	18:20	-
7	-	-	-	-	19:20	-
8	-	-	21:20	-	-	-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기러기

메리 올리버

착해지지 않아도 돼.
 무릎으로 기어다니지 않아도 돼.
 사막 건너 백 마일, 후회 따윈 없어.
 몸속에 사는 부드러운 동물,
 사랑하는 것을 그냥 사랑하게 내버려두면 돼.
 절망을 말해보렴, 너의. 그럼 나의 절망을 말할 테니.
 그러면 세계는 굴러가는 거야.
 그러면 태양과 비의 맑은 자갈들은
 풍경을 가로질러 움직이는 거야.
 대초원들과 깊은 숲들,
 산들과 강들 너머까지.
 그러면 기러기들, 맑고 푸른 공기 드높이,
 다시 집으로 날아가는 거야.
 네가 누구든, 얼마나 외롭든,
 너는 상상하는 대로 세계를 볼 수 있어.
 기러기들, 너를 소리쳐 부르잖아, 껍껍거리며 달뜬 목소리로-
 네가 있어야할 곳은 이 세상 모든 것들
 그 한가운데라고.



메리 올리버(MARY OLIVER, 1935~, 미국 오하이)

1963년 첫 시집 『항해는 없다 외(NO VOYAGE AND OTHER POEMS)』를 발표.
 1984년 『미국의 원시(American Primitive)』로 풀리처상 수상.
 1992년 『새 시선집(New and Selected Poems)』으로 전미도서상 수상.
 《뉴욕 타임스》가 “단연코 미국 최고의 베스트셀러 시인” 이라고 인정한
 메리 올리버의 시들은 자연과의 교감이 주는 경이와 기쁨을 단순하고 빛나는
 언어로 노래한다.

바다 가 들려주는 이야기

C O N T E N T S

PART 1 기획 전시	03
북극항로 향해 사진전	
PART 2 소장품 이야기	05
주꾸미 소호	
PART 3 열린 마당	07
SNS 시대 우리말은 안녕한가	
PART 4 박물관 사람들	09
PART 5 박물관 교육행사	10
PART 6 박물관 소식	11
PART 7 사진 후기	12

바다가 들려주는 이야기



기획전시
북극항로 항해 사진전

한국 최초 북극항로 시범 운항
 365일의 기록

북극항로 사진전시회는 지난해 시행된 “2013 북극항로 시범운항”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시범 운항기간 중에 촬영된 북극항로 주변의 풍광과 항차에 관한 여러 대상을 전시함으로써 국민들의 북극에 대한 이해를 돕고 인류공동의 유산인 북극해에 대한 환경보호와 평화적인 이용에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2013년 5월 북극진출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의 정식 옵서버 자격을 획득하였으며, 같은 해 9월 16일부터 10월 21일까지 35일간에 걸친 우리나라 최초의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 해빙의 가속화가 진행됨에 따라 생태계의 변화가 일어나 북극을 서식지로 하는 동물들의 개체 수가 줄어드는 등 환경적인 악영향이 나타나는 한편 지금까지 만년빙으로 덮여 있던 동토와 북극해의 얼음이 녹음으로써 자원개발이 용이해지게 되었습니다. 연안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북극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자원을 비롯한 풍부한 광물자원이 그곳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러시아를 비롯한 미국, 캐나다, 노르웨이 등은 해저유전개발 등 자원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페초라지역과 야말지구에 대규모의 석유와 가스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시켜 낙후된 경제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목적으로 생산된 제품들을 유럽과 아시아 지역 여러 국가들에 판매하기 위해 북극항로(Northern Sea Route)의 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987년 북극항로 개방을 선언한 이후, 서방 상선으로서 2009년 독일의 벨루가 선박회사 소속의 중량물 운반선 2척이 통과한 이후로 2012년에는 46척, 2013년에는 71척이 통과할 정도로 선박 척수와 화물 수송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그중에서 우리나라에 출입한 선박척수만 2012년 11척, 2013년 8척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극항로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해상실크로드로서 떠오르고 있으며 일찍부터 북극과 북극항로에 대한 연구에 눈 뜬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극 여러 나라뿐만 아니라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도 새로운 물류수송로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에 의하면 미주 대륙이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북미 쪽의 미국과 캐나다에는 기록적인 추위와 폭설로 교통이 두절되는 등 큰 한파 피해를 주는 한편 남미 쪽인 아르헨티나의 낮 기온이 최고 50도를 넘어 100년 만의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상이변의 원인은 극 소용돌이(polar vortex)가 지구온난화로 인해 중위도 쪽으로 내려와 강추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북극은 지구의 온도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극의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대한 정확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산업화에 따른 지구 온난화 추세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변화의 물결을 탔다고 할 수 있으며 한편으로는 생태계에 변화를 몰고 오는 위기인 동시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자원개발로 인한 경제성장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세계 제1위의 조선국이자 제8위의 해운국인 우리나라로서는 북극의 자원개발에 필요한 해양플랜트나 생수품의 수송 등에 필요한 선박건조에 동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다가올 것으로 기대합니다.



남청도 (한국해양대 교수)



소장품 이야기

주꾸미 소호

‘봄 주꾸미 가을 낙지’ 라는 말이 있다. 주꾸미는 연중 잡히긴 하지만 날이 슬슬 풀리기 시작하는 봄철, 산란을 앞두고 가장 맛이 좋다. 2월 중순부터 어민들은 바다에 주꾸미를 낚기 시작해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는 5월 중순까지 작업을 한다. 그중에서도 서해안 일대가 유명한데, ‘주꾸미 축제’ 로 유명한 서천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주꾸미를 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주꾸미가 많이 잡힌다.

봄철 주꾸미는 진미로 꼽혀서 많은 사람이 찾는다. 주꾸미는 삶아서 먹거나 고추장을 적당히 넣어 볶아 먹는다. 특히 제철에 먹는 주꾸미는 육질이 쫄깃하고 고소하며 알을 품고 있어서 몸통은 담백한 맛이 난다. 주꾸미가 가진 영양가를 살펴보면 타우린은 간 해독과 콜레스테롤 수치 강화에 효과적이고 DHA는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준다고 잘 알려져 있다. 또 철분이 풍부해 빈혈에도 좋다. <동의보감>은 주꾸미를 두고 ‘성질이 평하고 맛이 달며 담석 용해, 간장 해독 기능을 강화해준다’ 고 설명하고 있다.

주꾸미는 문어, 낙지처럼 다리가 8개이지만 문어가 깊은 바다 속에 사는 것에 비해 주꾸미는 모래바닥에서 산다. 크기는 문어에 비해 훨씬 작고 몸통은 낙지와 유사하지만 다리가 훨씬 짧다. 주꾸미가 모래바닥에서 살기 때문에 모래문어로 부르기도 한다.

영어권에선 주꾸미를 물갈퀴발 문어(webfoot octopus)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문어와 비슷한 모양이지만 다리 짧은 주꾸미의 모습에서 나온 명칭이다. 문어를 가리키는 옥토푸스(Octopus)는 그리스어로 ‘8’ 이라는 의미의 옥토(octo)와 ‘발’ 이라는 푸스(pus)가 합쳐진 말이다.

주꾸미는 몸통의 길이가 20cm 내외로 성장하고, 8개의 팔은 거의 같은 길이이며, 4~6월에 산란한다. 몸 빛깔은 변화가 많으나 대체로 자회색이고, 좌우 셋 째 번 팔의 연결된 부위에 황금색 눈 모양의 고리 무늬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봄이 되고 수온이 알이 부화될 수 있는 정도로 따뜻해지면 주꾸미는 알을 낳을 산란장을 찾는다. 산란장은 주로 모래바닥 위의 전복, 조개, 고둥의 껍데기나 바위 틈새이다. 주꾸미는 이 중에서도 크기가 큰 피빨고둥을 좋아한다. 자산어보에서 주꾸미를 ‘죽금어(竹今魚)’ 라 하고 한자로 ‘웅크릴 준’ 자를 써 ‘준어(鱚魚)’ 라 했는데, 야행성인 주꾸미가 낮에는 바위틈이나 소라 껍데기 속에 웅크리고 있는데서 나온 이름으로 추측된다.

주꾸미 주낙은 이런 주꾸미의 습성을 이용한 것으로, 피빨고둥 끝에 작은 구멍을 뚫고 긴 줄에 일정한 간격으로 고둥을 연결하여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어구를 주꾸미들이 많은 바다 속 모래바닥에 길게 늘어놓으면 주꾸미들이 빈 고둥의 껍데기 속으로 한 마리씩 들어간다. 이 소라 껍질을 이용한 이 어법을 패류껍질어업이라고 하며, 어민들 사이에서 주꾸미 주낙을 ‘소라방’ 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라방을 이용하여 주꾸미를 잡으면 소라 껍데기 말고는 거의 밀천이 들지 않는데다 산채로 판매할 수 있어 유리하기 때문에 즐겨 사용되는 어법이다.

주꾸미를 잡는 소라 주낙은 현재 박물관 4층 상설전시실 수산업 코너에서 관람할 수 있다.

백승주(국립해양박물관 학예연구사)





열린마당

SNS 시대 우리말은 안녕한가

신문사에서 글을 바로잡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 직업병이 생겼다. 청첩장이든 광고든 어떤 글이나 맞닥뜨리면 흠을 찾아보면서 속으로 평점을 내리는 버릇이 그것이다. 이 지경에 이르면 타인은 물론 자신이 쓴 글에 대해 무척 엄격해진다. 바른 글을 써야 한다는 생각이 강박에 가까워 문자메시지 두어 줄 보낼 때조차 조심한다. 맞춤법에서 띄어쓰기까지 또박또박 지킨 문자메시지를 완성한 후 이걸 그대로 보내면 받는 이가 갑갑해할까 봐 부러 오타를 넣기도 한다. 광속으로 정보를 유통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시대인데 글쓰기가 좀 흐트러진들 대수인가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의식한 행동이다. 일상에서 맞춤법 정도는 신경 쓰지 않는 풍토가 새삼스럽지 않지만, 요즘 들어 그 정도가 심해져 우리글이 ‘안녕하지 못함’ 을 우려하는 이가 많다.

좀 지나간 일인데, 2012년 9월께 방송가에서 ‘차칸 남자 소동’ 이 있었다. KBS 2TV가 새 드라마를 내면서 제목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차칸 남자’ 로 내걸었다가 우리말 맞춤법에 어긋나고 비속어라는 여론 질타에 떠밀려 결국 제목을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남자’ 로 변경했다. 이 방송은 드라마 제목을 ‘닥치고 패밀리’ 에서 ‘패밀리’ 로 바꾼 지 한 달여 만에 또 홍역을 치렀다. KBS 2TV는 2011년에도 드라마 제목을 ‘식모들’ 로 내세웠다가 여성 비하라는 지적을 받고 ‘로맨스타운’ 으로 제목을 고친 전력이 있다. 드라마 제목과 살이 끼었는지, 담당자들이 무심한 탓인지 그 이유를 판단하기 힘들다. 단지, 대중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영 방송사가 되풀이해선 안 될 일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하다. 언론사가 우리 사회에서 공기(公器)라는 중요성 면에서 특정 방송사 사례를 들추어 봤을 뿐 누구나 아차 하는 순간 우리글 파괴자로 전락한다.

노래 가사에서 그 예를 찾아보자. 필자가 좋아하는 송창식 씨 노래 중 하나가 ‘푸르른 날’ 인데 제목 중 ‘푸르른’ 은 ‘푸른’ 으로 표기해야 옳다. 미당 서정주(1915~2000)가 빚은 시 ‘푸르른 날’ 을 노랫말로 빌려 왔으니 송 씨를 탓하기는 어렵다. 미당 역시 시어를 맛깔스럽게 빚기 위해 ‘푸른’ 보다 ‘푸르른’ 을 일부러 선택했을 것이다. 문제는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문인들마저 ‘푸르른’ 을 표준어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유명한 시에 나오고 잘 알려진 노래에 등장하는데다 어감마저 좋기 때문인지 ‘푸르른’ 이란 단어는 바로잡아야 하는 단골 비표준어로 세력을 확장해가고 있다.

일상에서 우리말이 잘못 사용되고 있지만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표현으로 ‘피로 회복’ 을 들 수 있다. 쌓인 피로는 풀어야지 회복해서야 되겠는가. ‘피로 해소’ 정도로 고쳐 써야 옳다. 상식에 어긋난 이 표현이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게 된 이유를 필자는 모 제약회사가 수십 년간 해오고 있는 드링크 광고(‘피로 회복에 박카스’)에서 찾는다. 공중파 방송 드라마 제목이나 유명 광고 문구는 이처럼 대중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말 나온 김에 유사한 사례를 들어 보자. ‘자랑스런(←자랑스러운) 한국인’ ‘런닝맨(←러닝 맨)’ ‘너무(←정말) 좋다’ ‘거치른(←거친) 들판으로 달려가자’ ‘하늘을 나르는(←나는) 비행기’ ….



IT(정보기술)는 대중에게 글쓰기로 향한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 트위터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 남녀노소가 글을 쏟아내고 있는 현상은 전에 없던 것이다. 그 양을 정확하게 수치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것만은 인정해야 한다. 문제는 글쓰기 양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우리말 품질 저하에 대해 우리 사회가 둔감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고서 논문 기사문 판결문 논술과 같이 우리말을 바르고 세련되게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결코 줄지 않는다. 이 같은 우리말은 공공 문화자산이다.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언중은 우리말을 훼손하지 않도록 지켜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우리말 사용법에 관해 간간해질 필요가 있고, 그런 언중이 많아질수록 국가 품격이 올라간다.

박물관 사람들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는 박물관은 참 따분하고 지루한 곳이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안의 유물과 빼곡히 적힌 글자들은 한참 뛰어놀고 호기심 많던 저에게는 그리 즐거운 곳은 아니었습니다. 만지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 어린이들은 모든 것을 가까이 보고 싶고 직접 경험하길 원합니다. 사실 저는 성인이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린이들에게 국립해양박물관은 그야말로 따뜻하고 친숙한 박물관입니다. 갑갑하고 무거운 느낌 없이 따스한 햇살과 아름다운 바다의 경관을 박물관 안에서 바라볼 수 있으며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색감 있는 패널과 이미지, 그리고 직접 손끝으로 만질 수 있는 터치풀은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충분히 자극합니다.

국립해양박물관에 온 어린이들의 표정은 옛날 제가 박물관을 갔을 때의 표정과 사뭇 다릅니다. 어린이들의 눈가는 반짝거리고 입가에는 미소가 한가득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의 눈길을 끄는 곳은 2층에 위치한 어린이 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서는 마음껏 뛰어놀 수 있으며 갯벌, 항만, 선박, 심해 등 바다를 주제로 한 여러 가지 테마를 좀 더 쉽게 느낄 수 있도록 전시가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어린이박물관에서 동화를 통해 바다의 소중함을 어린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금은 어려울 수 있는 바다 오염, 지구온난화와 같은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동화를 통하여 어린이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고 듣는 것만이 아닌 직접 어린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어 박물관이 지루한 곳이 아닌 생생하고 재미있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또한 바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지, 그리고 우리들이 좋아하는 바다생물들을 어떻게 지켜내야 하는지 어린이들에게 각인시켜 주고 싶습니다.

얼마 전 기사를 읽었습니다. 사람들이 버린 비닐 쓰레기, 그리고 풍선 등을 먹이인 줄 알고 먹었다가 목숨을 잃은 바다거북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꼭 어린이들에게 해주곤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친구들이 점점 사라져 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것이 어려운가요? 어린이들은 크게 아니라고 대답하고 쓰레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쓰레기로 분리수거를 함께 해봅니다.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나의 놀이처럼 여기게 하여 잠시만 하는 것이 아닌, 밖에서도 재밌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이 국립해양박물관을 다녀가면서 아! 재밌었다고 하는 것이 저에게는 크나큰 보람입니다. 더불어 바다의 소중함도 가슴에 담아 두고 간다면 얼마나 벅찬 일인지! 어린이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늘 가슴이 뭉클 하곤 합니다.

박물관은 과거의 이야기가 현재로, 또 미래로 연결된 곳입니다.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박물관을 가까이 느낄 수 있도록 아직 부족한 점이 많지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으로써 좀 더 발전되어 가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예슬 (전시운영팀)



박물관 교육행사

어린이박물관 구연동화 「물고기 친구들을 지켜주세요」

매주 목~금 1회(11:00), 2회(15:00), 매주 토 1회(11:00), 2회(16:00) / 유아 / 80명 / 어린이박물관 / 인터넷 및 현장 접수 / 무료

바다에 사는 생물들을 동화를 통해 쉽게 알아보고, 바다에 함부로 버려진 쓰레기들로 인해 고통 받는 물고기들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 방법들을 구연동화와 동요를 통해 배워보는 유아교육 프로그램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과의 만남」 화상통화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11:00~11:30 / 전체 / 20명 / 4층 전시실 / 인터넷 및 현장접수 / 무료

남극세종과학기지 연구원의 화상통화를 통해 남극의 자연 환경과 과학연구 활동에 대해 평소 궁금한 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장차 과학자로서의 진로를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

Happy Weekend 「충무공 전술비연의 암호를 풀어라」

1~3월 / 매주 토요일 / 2회(12:30~14:00, 15:00~16:30) / 초등학교를 포함한 가족 / 50명 / 제1강의실 / 인터넷 선착순 접수 / 무료(재료비 별도)

초등학교를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한 주말프로그램으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전술에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전술비연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연을 만들어 보는 가족체험프로그램

박물관 소식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 2014. 1~

부산의 박물관을 돌아보며 눈높이에 맞춘 전시 해설을 들을 수 있는 '박물관 투어 프로그램'이 매월 셋째, 넷째 토요일마다 진행됩니다. 부산지역 내 박물관을 버스를 타고 2개 코스로 나눠 돌아볼 수 있습니다.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강사를 따라 즐거운 박물관 여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A코스(매월 셋째 주 토요일 13:30~19:20)
부산박물관 → 임시수도기념관 → 동삼동패총전시관 → 국립해양박물관 → 부산박물관

◎B코스(매월 넷째 주 토요일 13:30~19:30)
부산박물관 → 복천박물관 → 근대역사관 → 부산박물관



북극항로 항해 사진전 22014.1.10.~17

북극항로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순회 사진전이 7일간 전시되었습니다.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정부의 '2013 북극항해 시범운항' 프로젝트에 전문가와 취재기자로 참여했던 남청도 한국해양대 교수와 언론사 취재진이 촬영 한 32점의 작품으로 북극항로의 생생한 모습을 담은 사진을 통해 북극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설날 맞이 전통 민속놀이 체험행사 2014.1.30.~2.2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떡메치기를 비롯하여 전통 민속 놀이체험, 가족영화를 무료 상영 했습니다.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떡메치기 체험은 물론 맛있는 인절미를 함께 나눠먹고, 널뛰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을 하며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셔틀버스 운행 시간 변경 2014.1.7.~

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1월 7일(화)부터 셔틀버스가 1회 증편하여 운행합니다.

[평일]
박물관 출발(버스정류장) 10:00, 11:30, 13:00, 14:30, 16:00, 18:20
부산역 출발(3번 출입구) 10:30, 12:00, 13:30, 15:00, 16:30

[토요일]
박물관 출발(버스정류장) 10:00, 11:30, 13:00, 14:30, 16:00, 18:20, 21:20
부산역 출발(3번 출입구) 10:30, 12:00, 13:30, 15:00, 16:30, 19:00

[일요일,공휴일]
박물관 출발(버스정류장) 10:00, 11:30, 13:00, 14:30, 16:00, 18:20, 19:20
부산역 출발(3번출입구) 10:30, 12:00, 13:30, 15:00, 16:30



해양수산 정책 설명회 2014.1.14.

부산지역 해양수산 현안 사업에 대해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이 직접 설명하는 '해양수산 정책 설명회'가 국립해양박물관 1층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해양수산 관계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해운보조기금 신설, 해경특구 도입, 북항 경쟁력 강화,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 수산물 소비 촉진 등의 현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였습니다.



홈페이지 새단장 2014. 2. 3~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더욱 새롭고 알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립해양박물관 홈페이지가 새롭게 단장하였습니다.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전시, 교육, 행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하고, 보다 더 많은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모바일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 후기

2014 설날 맞이 전통 민속놀이 체험행사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아 전통 민속 놀이체험 행사를 가졌습니다. 박물관을 찾은 시민들이 떡메치기 체험은 물론 맛있는 인절미를 함께 나눠먹고, 널뛰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굴렁쇠 굴리기 등을 하며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꼬마 아가씨들의 널뛰기



투호놀이



온가족 함께하는 즐거운 민속놀이!



국립해양박물관의 캐릭터 하나와 함께 활짝~!



전통 떡메치기 시범~



엄마와 함께 전통 떡메치기 체험



어린이들에게 인기많은 캐릭터 해리



즐거운 떡메치기 체험!